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in who?

인후문화의집



사람과 사람, 문화로 채워가는 삶
그리고 나눔을 이야기하다

Contents

- 04 생활문화플러스
 - 인후 마중물 프로젝트
 - 인후 메이커스 프로젝트
 - 전주문화의집 역량강화 워크숍
 - 계단갤러리 & 전시회
- 16 With 인후
 - 100인의 손수건
 - 마스크 & 스트랩
 - 신축년 '행복' 가랜더
 - 인후문화의집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
- 24 Makers 인후
 - 펠트액자만들기
 - 바람솔솔부채만들기
 - 슬기로운 집 밥 생활을 위한 자수러너
 - 고무신신고 폴짝
 - 손끝에서 피어나는 보석십자수
 - 콘튼 돌(cotton doll)만들기
- 30 책마을
- 31 독서문화플러스
 - 떡국 먹Go 나이 먹Go
 -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만들기'
 - 원리를 배우는 '놀이과학'
- 34 문화의 일상화 & 사람들
- 38 인후사용설명서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독특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활동으로 발현된 재능이나 관심을 지속, 발전시켜 삶의 방향 찾기, 취미활동,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나의 역할 등을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20생활문화센터운영활성화프로그램지원사업

인후 마중물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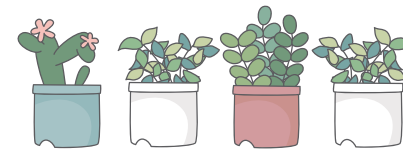


생활문화 플랫폼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매개로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이 협업하여 새로운 생활문화 활동을 시도해 보고자 기획했다. 지역특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네사람들의 주체적인 참여는 다양한 생활문화 확산,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낯선 이웃들과 관계 맺기 등 긍정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게 되었다.

잠자는 아트 깨우기

버려지는 가구 & 헌옷 새롭게 바뀔 수 있다!!
예술적 감성과 만나서 쓸모있는 물건으로 재탄생 하다!!



'처음엔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이라는 주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획팀장님이 보여주신 예들을 접하고 나니 생활 속에서 손잡이를 새로 달거나, 때 묻은 곳을 사포로 밀어내고 예쁜 색으로 다시 입혀주는 작업도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이더라구요. 4회에 걸친 강의동안 저한테도 새로운 도전이 되어서 흥미로운 사업이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참여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서 더욱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지역사회 의 환경문제도 주민들과 함께 돌아보고 버려지는 물건들을 새로운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 했다. 단순한 리폼이 아니라 지역예술가와 함께 실험적 아트 리사이클링의 형태로 작품을 제작해 보고 앞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로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할 수 있는 리폼은 많은데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던 새로운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을 4회에 걸쳐 강의하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웃음)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1회 남겨놓고 1달 넘게 쉬게 돼서 마무리를 못하게 될까봐 걱정도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참여자분들이 기본 좋은 얼굴로 멋진 작품을 가져가셔서 집에 잘 걸었다고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목공 리사이클링



목공은 처음 참여자를 모집할 때부터 인기가 많았다.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는 모두 생소했지만 4차시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준 참여자들은 단순한 작업이 쓸모 있는 작품으로 변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어디에 쓰는 도구예요? 신기하게 생겼다~”
 “드릴은 소리가 너무 무섭게 나서 겁부터 덜컥 나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칠해야 예뻐요?”
 “애들이 쓰고 있는 책상도 많이 낡았는데.. 그것도 예쁘게 칠해주면 좋겠다.”
 처음 우려 섞인 소리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서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던 가구 리사이클링!!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가지고 온 작은 가구들!!
 저마다 사연을 담고 있는 가구들이 멋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 나 시집올 때 가지고 온 탁자데... 너무 낡았다.”
 “헉! 그렇게 오래됐어? 그런데 왜 안 버렸어?”
 “그때만 해도 얼마나 비쌌는데! 이거 얼마나 유행이었다구... 살 때 손이 덜덜 떨렸는데!”
 “새 것 만들어서 다시 신혼되면 되겠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스크 고쳐 쓰고 추억의 손때가 묻어있는 가구의 리사이클링을 계획 후, 망치를 대기 무섭게 와르르 부서져 버려 당황했던 7차시.
 쓱쓱쓱, 드르륵 드르륵...
 준비된 새로운 재료들로 튼튼한 다리도 다시 만들고, 세련된 손잡이도 다시 붙여 놓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열정 넘쳤던 시간!!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사용하는 작업은 생각만큼 녹록하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손길을 필요로 한다.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네.”



패브릭 리사이클링



요즘은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순 없을까? 라는 고민이 감각적인 예술품을 탄생시킨다. 잠자는 아트 깨우기를 통해 비대면 시대의 지루한 집콕 생활이 삶의 질을 바꾸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계속 되길 바라본다.

“못 입는 옷이나 청바지를 가지고 새로운 소품을 만들 수 있으려나?”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이제 이런 테이크아웃 컵도 막 버리지 말아야 겠네.”
 “이거 아끼는 옷인데 못 입게 돼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자리만 차지해서 어쩌나 했는데...”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하나씩 꺼내서 새롭게 바꿔볼까봐 ㅎㅎ”



한 땀 한땀,
 이태리 장인이 울고 갈 정성이 가득 담긴
 핸드메이드 패브릭 업사이클링!!



人:Who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 누구나) 서포터즈

인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는 나이 드신 분들만 이용하는 곳이다? No!!
이제는 인후문화의집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한 때!!

“ㅎㅎ이렇게 하면 내 사진도 연예인들처럼 예쁘게 나오려나?”
“그건 그냥 예쁘고 날씬해야 되는거고~”
“그런가? 에이~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활동이라도 잘 남겨보자.”



▲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기획교육

원데이 클래스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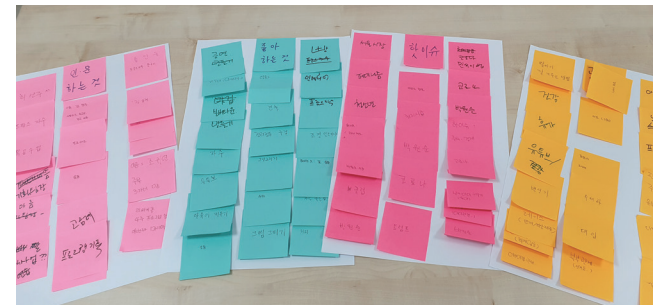
1차 주민기획 프로그램 '인후 마중물 프로젝트 콜라보레이션'

“나눠져서 운영되긴 해도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참여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좋네.”
“그러니까요. 이런 프로그램 없으면 만날 일도 없잖아요.”
“라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알려주신 방법은 하난데 모양은 제각각 인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 라탄공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는 상황을 겪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센터를 운영할 방법을 모색했고 비대면 프로그램,
화상회의 등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1차 문화기획강의 '기록자의 기획'

“프로그램 기획이 그렇게 말처럼 쉬울까? 어휴... 난 자신 없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관심사가 이렇게 많았어?
이것만 다 모아놔도 뭐 하나 되겠네~”
“내년엔 이런 것 한번 해볼까? 재밌겠다~”

2차 문화기획강의

“오~ 프로그램이 꼭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문학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
“듣고 싶은 인문학 강의 있으세요?”
“설민석 선생님 같은 분이 해주시는 역사 강의도 들어보고 싶네~”
“그렇게 비싼 선생님이 여길 어떻게 와~”
“말이 그렇다는 거지 ㅎㅎ”



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한 인후문화의집은 전주와 외부를 잇는 교통의 길목이면서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곳이지만 인근에 조성된 신도시로 인해 많은 인구이동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 유입된 지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문화예술활동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지역민을 모집하여 주민기획자를 양성하고 참여형 생산자인 생활문화인을 구축, 인후서포터즈를 창단 했다.



▲ 인문학강의를 통한 삶에 고찰

2차 주민기획 프로그램 - 비대면 수제청 만들기 '집콕을 부탁해'

첫 영상 클래스였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던 프로그램



▲ 수제청 만들기 <레몬히비스커스, 시나몬애플청 만들기>



3차 주민기획 프로그램 - '나도 앤디워홀'

팝아트 캐릭터 그리기를 통해 컬러테라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인후 메이커스 프로젝트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이 문화예술 향유 수혜자를 넘어 주체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일상이 행복해지는 문화활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새로운 동호회 회원들이 생기면 좋을텐데...”

“저희 공방이랑 골목 안에 다른 공방들도 소개하고 싶은데 다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것 보다 홍보가 정말 힘들어요.”

“맞아. 옛날엔 그냥 전단지 돌리고 그러면 됐는데... 요샌 보안도 심해져서 함부로 하면 안되기도 하고..”

“또 인터넷 홍보는 너무 어려워요.”



지역과 공동체 잇기

동네의 소규모 공방과 생활문화동호회원들의 재능에 전문 문화예술교육을 더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축제, 문화장터개발 등 기획자로서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민들과 교류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동네에 있는 실력 좋은 선생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우리 공방 함께 이용하실 분들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 없나?

인후동 안골 네거리 대로변 안쪽 골목 상가들은 리폼, 뜨개, 목공, 도예, 보태니컬아트 등 수공예 작품 활동을 하는 공방들이 형성 되어 있다. 골목안쪽이라 잘 알려지지 않은 공방들과 기존에 지역에서 생활문화동호회 및 생활문화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아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들어 더욱 풍성한 문화활동을 펼쳐 보고자 했다.

인후 메이커스 워크숍

기존 생활문화동호회와 소규모 공방의 공통적 고민은 홍보!

시대가 발전하면서 SNS, 블로그 등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해졌지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



“네이버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

“맛집 찾아 볼때만 써봤지.”

“내가 직접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래도 해봐야지~ 뭐든지 다 옛날 같지 않은데...”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블로그 포스팅의 사진배치까지...

더운 여름에 진행된 4주에 걸친 워크숍에서

홍보와 마케팅 학습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

아주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재능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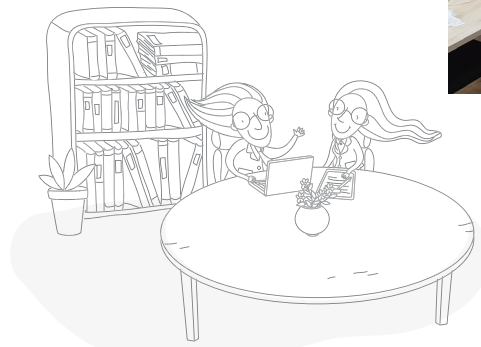


▲ 블루베리키위청 만들기

“매실청은 만들어봤는데
블루베리 키위청은 처음 만들어보네”
“잘 무르는 과일로도 청을 담글 수 있어요?”
“그러게~ 히비스커스도 난생 처음 봤어.”
“이건 무슨 맛이에요?”
“설탕은 왜 다 녹여서 넣어요?”
“너무 예쁘다!! 얼른 맛보고 싶네~”

재능나누기를 통해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언가를 만드는 가장 편안한 시간,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다양한 융합장르로서의 가능성도 엿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레진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거 손톱 굽는기계 아니예요?”
“반짝이를 예쁘게 두고 싶는데 맘처럼 안되네.”
“다른 사람 분야를 배워보는 것도 너무 재밌다.”
자기 분야에서만 활동했던 참가자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새로움과 흥미로움으로
유난히 빨리 지나갔던 시간...



▲ 레진아트 소품 제작하기

영상교육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모임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되었다. 금방 사라질 것 같았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일상은 아주 먼 옛날처럼 느껴지고 '뉴 노멀'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영상제작, 줌, 유튜브 활용 등 비대면 시대에도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줌” 너무 편리한데.. 어휴... 노트북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거야?
“나한테 구글 계정 이 있는데 어떻게 찾는거야?”



“매번 아들이 도와줘서 비밀번호 하나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자막은 어떻게 넣어요?”
“화면공유는 뭘 눌러야 해요?”
“할 수 있을까? 어렵네 이거...”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천천히 준비하고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 모두
비대면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전주문화의집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사회 문화의집의 역할과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효율적인 운영방안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 5개 문화의집 직원 및 문화종사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심리치유헌동, 각 문화의집별 사업 공유, 사업방향 제안 등 다각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다.



계단갤러리 & 전시회

공간의 힘은 크다. 오르내리는 계단, 밋밋한 복도벽면에 작품을 전시하기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수강생들과 동호회원들의 작품으로 채워지는 계단 갤러리는 내딛는 발걸음을 잠시 잡아두며 소소한 행복을 선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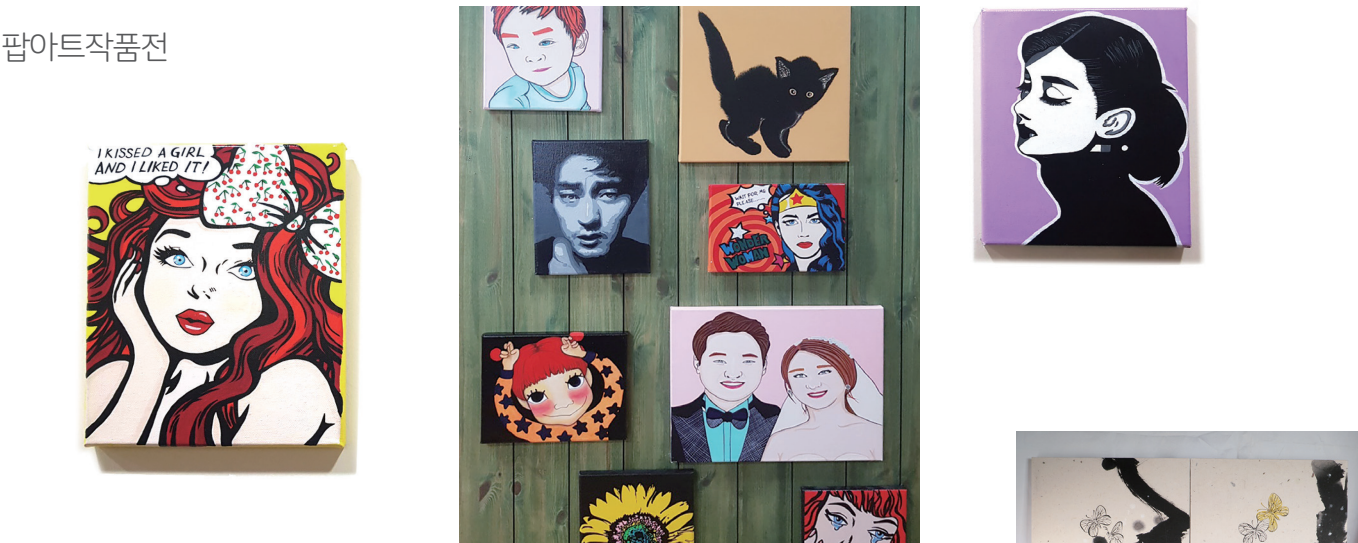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작품전



프랑스자수 작품전



팝아트작품전



민화&수묵일러스트작품전



잠자는 아트깨우기 작품전





‘With 인후, 안녕!’은
손수 정성들여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 활동 추구,
단절된 이웃, 친구 간에 서로 안부를 물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를 이어가고자하는 인사,
팬데믹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급증에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개선을 위한
실천의제를 정하고 인후문화의집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With 인후, 안녕!’ 과 함께
인후 서포터즈 활동 시작!



[서포터즈 첫 번째 실천의제] 100인의 손수건



손 씻기가 일상에서 중요한 개인위생 활동으로 대두되면서 1회
용 손 휴지 사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손수건을 소지하고, 사
용을 장려 는데 뜻을 두었다. 100장의 손수건을 제작하여 100
명의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개인이 소지한 장롱 안 손수건도
꺼내어 함께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100인의 손수건 참여자들이 함께 한 약속

- 외출할 때 손수건 챙기기
- 손 휴지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 30일, 60일, 100일 사용 인증샷 올리며 서로 응원하기
- 다양한 계층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서포터즈 두 번째 실천의제] 마스크 & 스트랩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공장소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손바느질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해 보기로 했다. 각각 3개씩 제작하여 인후마켓에 전시도하고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포터즈 세 번째 실천의제] 신축년 '행복' 가랜드(Kit)



2020년, 너무 힘드셨죠?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 가까이 있기에 소중함도 잊고 서운할 때도 많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서로에게 또는 자기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나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적고 예쁜 그림으로 꾸며주세요
'오늘, 지금 행복이 찾아옵니다'

인후서포터즈는 다양한 친환경 수공예활동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춰야 했다. 각자 정보를 모으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한 비대면 회의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내년에 추진할 생활문화활동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인후문화의집 서포터즈 모집



지역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문화예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후 서포터즈가 되면 주체적 문화활동가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문화예술에 관심 있으며 재능을 나누고 싶으신 분
- 손으로 꼼지락, 뚝딱 만드는 것 좋아하시는 분
-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동네친구를 만들고 싶으신 분
- 지역사회 불편한 부분을 논의하고 개선하고 싶으신 분
- 봉사하고 싶지만 혼자하기 쑥스러우신 분

함께해요 인후서포터즈!

인후문화의집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

여기 인후문화의집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인후 서포터즈'이다.문화의 집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고민한다. 인후 서포터즈들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할 지역주민들과 인후문화의집 운영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무자들과 협의하며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나눈다. 여기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 인후서포터즈회의/인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의논하는 모임

“ 이번에는 패브릭 공예로 우리가 직접 만든 물품을 지역에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 해주세요 ”

“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니까 리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식에 방향제 재료를 쓰면 향기도 나고 좋지 않을까요? ”

“ 저도 의견 내도 될까요? 우리 아이가 안전벨트 할 때 앉은키가 작아서 목이 쏘리거든요. 그래서 배하고 가슴에 삼각형을 크게 만들어서 보호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



“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용이 늘었으니까 마스크 스트랩이랑 천 마스크를 만들면 어때요? 길을 걷다 보면 주머니에서 빠지거나 잃어버린 마스크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스트랩을 써보니까 마스크도 잘 챙기게 되고 좋더라구요. ”

“ 지금 제가 쓰는 스트랩은 새우뜨기로 만든 거예요. 문구센터에서 고리도 사이즈별로 팔고 있어서 간단하게 만들기도 쉬워요 ”

“ 올해는 친환경 관련된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천 마스크나 면 생리대를 만들어서 주변 여학교에 가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선물해도 좋고 인터넷에 홍보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

“ 패브릭 공예 전문가: 면 생리는대는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이 어려워요. 인체에 닿는 거라서 천도 아무거나 쓸 수 없고 바느질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무래도 초보들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

“ 일단은 샘플로 하나씩 만들어 보고 대량으로 만드는 문제를 고민해보죠. 그리고 마스크 스트랩은 코바늘뜨기로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 우선 다음 주 모임 때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 해보게요 ”

인후문화의집 서포터즈는 지역 문화에 관심있는 참여자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을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현재는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일회용 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손수건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100인의 손수건 프로젝트'를 기획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들을 고민하고 있다. 인후 서포터즈들이 어떻게 만나 함께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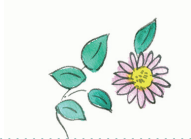
인후 서포터즈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작은 도서관에서 엄마들과 책 모임을 하면서 인후문화의 집을 알게 되었고 여기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

“ 아이 키우며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의미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인후문화의 집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만들기하고 재밌게 놀면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만든 것을 기부도 한다고 하니 더 좋은 것 같아요 ”

“ 제가 늦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좀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여유가 생기자 인후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프렌치 자수부터 목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삶의 분위기도 더 밝아졌어요. 그리고 서포터즈로 참여하면서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에 좋은 공간이 있으니 참여해보라고 적극 권장도 하고 있어요 ”



우리 지역에 문화의 집이 있어서 좋은 점

“ 비가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도 자유롭게 보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

“ 요즘은 다들 아파트에 살아서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서로 모르고 사는데 이곳에 오면 주변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요 ”

“ 프랑스 자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재능을 쓸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하게 됐어요 ”

“ 저는 오늘 인후문화의 집에 처음 왔어요.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즐겁게 만들면서 놀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보통 아이 엄마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 뻘한 이야기로 수다 떠는 일이 전부인데 여기서는 사람들과 좋은 취지로 만들기 활동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대돼요 ”

“ 처음 인후 메이커스를 소개 받았을 때는 편하만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만든 물건들이 기부를 통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가 뛰어난 재주는 없지만 뭐든지 열심히 같이 배워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

“ 저는 태평동에서 켈리와 수제도장 작품을 만드는 ‘탐나랑’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성은숙 팀장님과 인연으로 인후문화의 집에서 팝아트와 수제청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 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이나 친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어요 ”

“ 평소 체험해보지 못했던 교육들을 비교적 저렴하게 배우고 다양한 원데이 체험들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

“ 여기 인후문화의 집은 우리 주민들이 배우고 싶거나 체험 해보고 싶은 교육을 말하면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좋아요 ”

내가 추천하고 싶은 인후문화의집 프로그램

가드닝 수업

가드닝을 배우면서 간단한 목공과 식물 식재법을 배웠어요. 저희가 배운 가드닝 기술로 우리 동네 노인정 정원을 꾸며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식물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유익하고 보람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추천하고 싶어요.



소모임 공간

여기 인후문화의집은 평소 소모임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에요. 저도 이곳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저희 소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소모임을 만들고 활동해 보시길 바라요.



프랑스자수

자수를 배워서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자수를 배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인후문화의집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



“ 인후 메이커스 프로젝트에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만든 것들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사고의 영역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 지역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

“ 현재 줌바댄스나 공연을 위한 교육 공간이 협소해요. 문화의 집은 다양한 연령층이 오는 곳인데 아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다 보니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공간도 마련되면 좋겠어요 ”

“ 100인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손수건을 선물하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홍보도 했어요 ”

“ 인후문화의집을 찾는 기존의 수강생들은 꾸준히 오시지만 새로운 수강생들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수강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획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졌어요. 인후문화의집의 좋은 기획들을 알리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골 사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은 아주 많은데 정작 인후문화의집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

인후서포터즈는 ‘함께 꽃 피우는 지역문화’를 운영목표로 17년 동안 성장해온 인후문화의집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꾸준한 기초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 왔고 특화사업발굴, 찾아가는 문화활동, 마을축제 등은 다채로운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며 참여를 촉진시켰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욕구는 더욱 다양해졌고 수강생들 또한 단순 참여자에서 프로그램 제안자, 강사 그리고 공방대표로 성장하며 문화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렇게 성장해온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인후문화의집과 동반 성장할 것이다.

펠트액자만들기

동네 초등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펠트를 활용하여 액자를 만들어 보았다.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추억을 되돌아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원하는 모양으로 오리고 붙여 개성 넘치는 액자들을 만들었다. 인생 컷 한 장 넣어주면 펠트액자 완성!



여마와 단둘이서만 갔던 첫 여행
'항상 동생만 챙기는 것 같아 속상했던
서운함이 껍다 해소되었다.'

바람 솔솔 부채 만들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유난히 힘든 여름이 될 것 같다.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 덥고 습한 여름이 곤욕스럽고 불편하다. 이럴 때 멋스러운 부채하나 준비해서 햇빛도 가리고 코로나도 바람에 날려버리자.

참여자들은 부채에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

'행복이오지 않으면 만나러가야지'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지금바람을 이겨내면 당신도 꽃 피겠지요! 힘내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밤하늘에 별보다 빛나길'



즐거운 집밥 생활을 위한 자수러너

2020년, 집 밥 문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집 밥이지만 비대면 활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 보니 외식이 점점 줄고 재료를 구입하여 손수 가족들 식사를 챙기는 가정이 많아졌다. 아이들 학교등교도 계속 미뤄져 주부입장에서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말로 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녹록치 않은 집 밥 생활을 즐겁르게 이겨내는 방법은 없을까? 매끼 다른 메뉴를 준비할 수 없다면 식탁분위기를 바꿔 보는 것도 좋겠다.



“김치국을 떨어질까봐 걱정되서 못쓰겠어요”



“난 재형이방에 바란스로 꾸밀 거야”



“인숙아, 너는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 넣었구나!”

고무신 신고 폴짝!



여름, 장마, 휴가 그리고 기영이의 검정고무신. 레트로 감성 뽐! 뽐!

기성세대들에게 고무신은 많은 스토리를 품고 있는 추억의 신발이다. 장마철 폭우로 아끼던 운동화가 젖었을 때 ‘에이! 고무신 신고 올 걸’ 후회도 했고, 도랑의 미꾸라지도 고무신으로 잡고, 고무신 멀리차기도 했다. 어릴 적 사랑했던 고무신은 젖어도 잠깐만 세워 두면 잘 마르고 수건으로 쓱 닦으면 뽕뽕해서 바로 신고 나갈 수 있어 좋았다. 올 여름, 요즘아이들과 아쿠아슈즈 대신 검정 고무신 패션을 유행시켜 볼까?



손끝에서 피어나는 보석십자수(Kit)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은 되었으나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처음으로 비대면 수업을 운영했다. 재택근무와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 온가족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문화 활동으로 채워주고자 했다.

먼저 홈페이지, 문자, 페이스북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신청자 개개인이 방문하여 키트를 수령해갔다. 각 가정에서 보석십자수를 멋지게 꾸미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문화의집으로 보내주었다.



코튼 돌 만들기(비대면)

cotton doll

문화의집도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운영방법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키트 제작배포, 영상강의, 줌을 통한 화상회의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코튼 돌 만들기도 대면+비대면 활동을 섞어 진행하면서 일부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 혼자 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었다. 함께 할 수 없으니 만나는 일상이 너무 그리다고들 한다. 당분간 따로 또 같이 영상으로 만나는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활짝 웃어주는 코튼돌이 우리에게 '힘 내' 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책마을

지역민들의 쉼터이자 독서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성장해 온지 8년!

2012년 10월 개관이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내 커뮤니티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반영한 10,000여권의 분야별 도서와 공기 청정기, 제습기, 책 소독기등을 비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검색용 컴퓨터를 비치하여 누구라도 원하는 도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1층 출입구엔 도서 반납함도 설치하여 시립도서관 못지않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모든 공립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다른 도서관의 책도 마음대로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

올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관으로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 인구는 더 늘어난 것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자제, 재택근무,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도서 대출이 꾸준히 늘었다. 한편 지역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도서관을 매개로 현대면 활동을 공유해 왔다면 이제는 사회변화에 맞춰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했다. 처음이라 서툴긴 했지만 Zoom을 활용해 영상교육, 독서동아리토론을 진행했고 만들기 키트를 제작하여 활동안내서와 동영상상을 함께 배포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사업을 마무리 했다.

내년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팬데믹 상황이 안정화되어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길 바라며 재미있는 책 놀이, 인문학강의, 방과 후 독서교실, 작가와의 만남, 중학논술, 다문화체험 등 연령대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고 한다.

작지만 큰 인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늘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해왔듯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독서문화플러스



책은 일상생활에서 공감과 다양성을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출입구가 되어준다. 이 책을 읽은 후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해야지만이 이해력도 생기고 편견이 사라지며 우리의 견문은 더욱 넓어진다. 독서에 문화를 접목, 독서 습관도 형성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여 일상의 즐거움까지 플러스하자.

떡국 먹Go 나이 먹Go

음력 1월 1일은 우리 고유명절 설날.

설에 행했던 의식과 함께 만들어 먹었던 전통음식을 나누며 우리고유 명절의 의미와 유래를 되새겨 보고자 했다. 연희네 설맞이. 설빔 책으로 독서토론을 나눈 후 참여자들이 함께 재료를 준비하고 떡국을 끓여 먹었다.



마음만은 벌써 한가위 ‘송편 만들기(Kit)’



다가오는 한가위에 온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만들어보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소원했던 가족 간에 행복을 찾아본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문자,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순식간에 마감되었다.



원리를 배우는 ‘놀이과학’

코로나19로 인해 여행도, 친척집에 방문과 만남도 쉽지 않은 외롭고 답답한 여름방학! 온라인수업과 격주등교로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공백이 많이 발생했다.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자 원리로 깨우치며 배우는 놀이과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과학을 흥미롭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이야!’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코로나-19)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인후문화의집 또한 200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를 몇 차례. 수강생, 동호회원 및 이용객들을 지치고 불안하게 만든 것 같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인후문화의집 활동가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인후문화의 집은
내 일상의
탈춥니다.

■ 2021 상설/동호회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및수강료(1개월)	요일	시 간	비고
음 악	드럼	학생 3만원 성인 4만원	토	10:00~12:00	
	드럼	3만원	월	17:00~18:30	
	통기타	학생 3만원 성인 4만원	토	13:00~15:00	
	목요기타	3만원	목	19:00~21:00	야간
	통기타(버들강아지)	동호회비	화	13:00~15:00	
	바이올린	3만원	수	17:30~19:00	
	우쿨렐레	3만원	목	10:00~11:00	
	신나는드럼	동호회비	목	17:00~19:00	
	전주만들린양상블	동호회비	월	10:00~12:00	
	천동소리(풍물)	동호회비	수, 금	10:00~12:00	
미 술	수묵일러스트	3만원	월	14:00~16:00	
	수채화교실	3만원	수	14:00~16:00	
	캘리그래피(A)	3만원	화	10:00~12:00	
	캘리그래피(B)	3만원	화	14:00~16:00	
	보태니컬아트	3만원	목	14:00~16:00	
	웰빙요가(A)	3만원	화, 목	10:00~11:00	
건 강	웰빙요가(B)	3만원	화, 목	11:00~12:00	
	줌바댄스	3만원	월, 금	14:00~15:00	
	영어회화(여행영어&팝송)	3만원	수	10:00~11:30	
학 습	이야기한국사	3만원	화	17:00~18:00	
	청소년 독서논술	3만원	목	19:00~21:00	
수공예 책마을	쏘잉매직(프랑스자수)	동호회비	목	10:00~12:00	
	필로소피아	동호회비	월(3주)	10:00~12:00	
	북 마스터클럽	동호회비	월(2.4주)	10:00~12:00	
	그림책여행	동호회비	화(3주)	14:00~16:00	

* 상설 및 동호회 프로그램 수강생 수시 모집 합니다.



인후문화의집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이다
일상의 탈출구...활력소...웃음...놀이터...
소통의공간...나의발전...배움의장소...까스활명수





인후문화의집 & 작은도서관 사용 설명서

인후문화의집 이용안내

전주시민 누구라도 상시 이용가능

평 일 : 9:00~18:00

토요일 : 10:00~17:00

일요일, 법정공휴일 : 휴무

이용시간은 프로그램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화창작실(100㎡)

- 요가, 드럼, 댄스, 통기타, 수채화 등 프로그램운영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설치



정보사랑방(33㎡)

- 학습, 교육, 동호회활동공간
- 소규모강의 및 회의
- 칠판, 이동식빔프로젝트설치



열린공간(71㎡)

- 소규모공연, 음악회, 발표회진행
- 지역청소년들의 연습공간
- 영화감상, 풍물수업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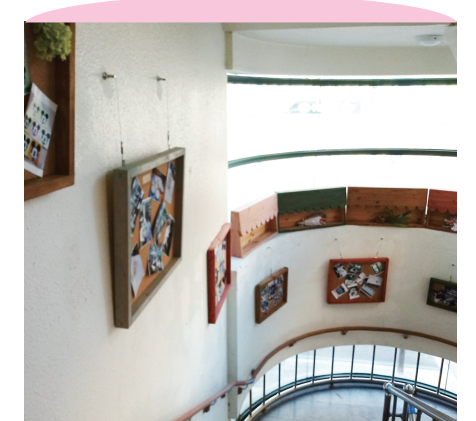
안내데스크&책도(30㎡)

- 마주침공간으로 이용객응대 및 안내
- 사업홍보와 문화활동정보비치
- 이용객편의시설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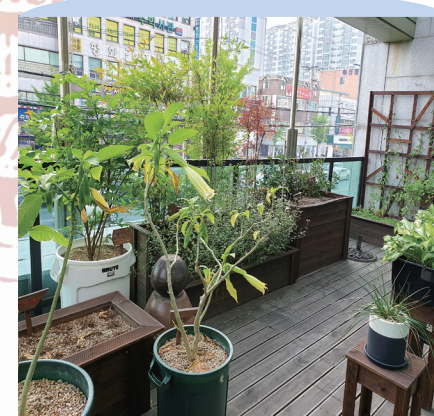
작은도서관(120㎡)

- 10,000여권의 도서비치
- 지역주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공간
- 전시, 나눔장터, 독서동아리활동운영



계단갤러리

- 프로그램 및 동호회원 작품전시
- 지역주민 누구라도 전시가능



쉼터(발코니)



출입문



2층출입문

in who?

2020년 12월 Vol. 4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인 고미숙
 편집인 성은숙, 고금례, 한아름
 발행처 인후문화의집 www.inhoo.jjcp.or.kr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290 2F
 TEL : 063) 247-8800

♣ 인후문화의집 자료집 'In Who?'는 전주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